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정 익 중**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발달궤적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는 5가지 형태의 상이한 발달궤적-만성형 비행청소년, 저비행 지속형 비행청소년, 중단형 비행청소년, 후발형 비행청소년, 무비행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어떤 생태체계적 요인이 비행의 발달궤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학교애착이 낮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리는 청소년의 경우 무비행형 집단에 비해 저비행 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에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고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리지 않고 학업성취가 높을 경우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해 16세 이후 비행에서 벗어나는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상이한 발달궤적에 따른 맞춤형 비행예방 또는 탈비행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청소년복지 실천지침을 제공한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발달궤적,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예방

* 본 연구는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09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제기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청소년의 경우 비행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어떤 청소년은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적 빈도분석이나 잠재성장모형 등을 통해 평균 발달궤적을 살펴보면 비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으로는 발달궤적의 개인별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비행연구는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이후 어떤 형태로 발달해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정태적 측면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하는 요인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동태적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이경상·이순래·박철현, 2007). 기존 비행연구들의 상당수는 횡단자료와 관찰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비행의 정태적 측면밖에 볼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의 장기자료와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이용하여 비행의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사례(정소희, 2009)처럼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만,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은 청소년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발달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이 청소년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 내에서 다양한 질적 차이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에서는 모집단 내 질적인 차별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집단 내의 상이한 발달유형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따라서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에서는 비행집단 간 상이성에 바탕을 둔 유형화에 초점을 둔다. Moffitt(1993)은 비행유형을 질적으로 상이한 생애주기 만성형(life-course persistent) 비행과 청소년기 중단형(adolescence-limited)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은 아동기 초기부터 비행의 조짐을 보이다가 생애주기 동

안 계속 다른 형태 혹은 더 심각한 형태의 비행과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은 일반적으로 비행빈도가 높아지는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기 초기에 비행또래집단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다가 청소년기 내에 비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화에 대한 검증은 선형적인 절단점(a-priori cutoff)을 이용한 주관적 방법으로 먼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경상·이순래·박철현(2007)도 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각 년도의 비행수준을 가지고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무비행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형적 규칙을 사용하여 집단을 주관적으로 유형화하는 연구들은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Nagin(2005)은 다음과 같이 주관적인 유형화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하위집단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동질적인 하위집단을 가정하고, 둘째, 하위집단의 수를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구체화하지 못하며, 셋째, 한 개인이 어떻게 특정 하위집단의 구성원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집단간 차이나 집단내 차이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함으로써 과잉 적합화(over-fitting)나 과소 적합화(under-fitting)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Chung et al., 2001).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개인을 유형화하는데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기법으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이나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등이 오래전부터 이용되었고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과 성장혼합형모형(growth mixture modeling)이 1990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형태로 SAS나 Mplus와 같은 통계패키지에 포함되면서 그 적용이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의 리뷰에 따르면 이러한 통계분석을 통해 비행과 관련해서 최저 2집단에서 최대 7집단까지 유형화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3-5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ulmen, Gonyea, Vest, & Flannery, 200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계분석이 진행된 적이 없어 몇 개의 비행집단으로 유형화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의 일종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이 비행 측면에서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살펴보고 이들 상이한 비행집단 유형이 어떠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해 영향을 받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

단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비행의 동태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인 잠재성장모형은 전체 청소년집단의 전반적인 비행 발달궤적을 분석할 수 있지만 청소년집단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발달궤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정소희, 2009). 만약 하위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인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유형화를 하는 이유는 모집단 내에 상이한 발달궤적을 보이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발달궤적 유형에 적합한 비행예방이나 탈비행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행에는 5가지 형태의 발달궤적-만성형 비행집단, 점증형 비행집단, 중단형 비행집단, 후발형 비행집단, 무비행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hung, Hill, et al., 2002; Chung, Hawkins, et al., 2002). 발달궤적 집단의 숫자는 비행을 어떻게 개념화하는 데에 따라, 어떤 발달단계(영유아기, 청소년기 후기 등)를 포함하는 데에 따라, 조사 회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van Dulmen et al., 2009), 대다수 연구에서 3-5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집단 유형은 만성형, 중단형, 무비행집단이었다. 만성형 비행집단은 Moffitt(1993)의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집단에 해당하고, 중단형 비행집단은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청소년패널 4개년 자료와 주관적인 유형화방법을 통해 악화형, 완화형, 정체형, 병합형, 무비행형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이경상 외, 2007) 조사 전 기간에 걸쳐 과거보다 점차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악화형 비행집단과 과거비행과 차후비행이 유사한 정체형 비행집단의 일부가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집단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완화형의 일부가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집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형은 1.6%인 반면 완화형이 53.4%를 차지하고 있

어 주관적인 유형화의 과잉 적합화와 과소 적합화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비행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발달 유형이 도출되면 어떠한 위험요인이 청소년을 심각한 만성형이나 점증형 비행 집단으로 발달하도록 하는지, 혹은 어떠한 보호요인이 청소년을 무비행 집단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행 관련 이론들은 비행 여부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지만 비행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Nagin & Trembla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 여부의 예측요인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높았던 것을 중심으로 발달 궤적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는 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써 가족, 또래 집단, 학교, 지역사회 요인이 동적인 발달 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1. 개인요인

기질적으로 착하고 순한 영유아는 기질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까다로운 기질은 비행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 Smith, 1992).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청소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인내심이 약해진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층 악화시킨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질의 대표적인 것이 공격성과 충동성이다. 이러한 기질은 발달 궤적 연구에서도 예측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Nagin & Tremblay, 2005).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행을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Crick & Dodge, 1994; Dodge, Bates, & Pettit, 1990). 또한 청소년에게 자이존중감은 비행, 학업 성취, 정신건강, 또래 집단이나 성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호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6; 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실제로 인과관계의 방

항에서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정익중, 2006).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훨씬 더 많이 저지른다. 남자청소년은 비행의 일부를 남자다움이라고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여자청소년은 그 반대로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자라난 여자청소년은 내재화된 성별 규범을 가지게 되고 이 규범이 비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정익중, 2005). 또한 성별에 따라 사회적 통제도 다르게 부여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여자청소년에게 이른 귀가시간을 요구하는 등 그들의 활동이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되는 경우가 많다(Belknap, 2007). 이러한 차이가 비행의 성별 차이를 가져온다.

2. 가족요인

부모는 보호와 애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이다(Pecora et al., 2000).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보호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빈곤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행문제, 우울증, 낮은 자아존중감, 부족한 사회적응력 등을 보인다(Conger, Conger & Elder, 1997; Loeber, 1990; McLeod & Shanahan, 1993).

비행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빈곤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부모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라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McLoyd, 1998).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대개 장시간 노동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자녀와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기 쉽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한 사람이 생계와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도 높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지도감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양육태도의 문제를 가져오기 쉽다. 부모·자녀 간 애착이 높고 부모가 자녀 생활에 적절하게 관여하고 감독하며 온정적이고 민주

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적게 한다. 반면 훈육이 비일관적 이거나 위협적·강압적이며, 부모·자녀 간 애착이 약하고, 자녀의 행동 자체 혹은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노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훈계보다 신체적인 체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희, 2009; Conger, Conger, & Elder, 1997; McLeod & Shanahan, 1993).

취약한 부모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재화·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 수치감, 혹은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다(McLoyd, 1998).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부간 또는 가족간 갈등을 유발한다(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학대아동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서적 문제, 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English, 1998; Pecora et al., 2000).

3.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학교는 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독립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허남순 외, 2005).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애착이나 학교몰입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소년의 적응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애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낮은 학업성취는 다시 비슷하게 성적이 낮고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비행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한 비행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기 쉽다(Mayer, 1997). 청소년기가 되면 소외받던 청소년들끼리 비행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비행의 좋은 훈련장소가 되어 비행을 급증시키게 되고 훨씬 더 만성적인 비행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다(Coie & Miller-Johnson, 2001).

4.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해체는 범죄, 실업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청소년에 대한 집합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적 소외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따를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Sampson, 1991; Sampson & Wilson, 1994; Wilson, 1991). 해체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Coleman, 1988; Hagan, 1994). 가정내에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장과정에서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지도감독한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개 증폭되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Moffitt, 1993).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

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다(이경상·조혜영, 2004).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조사된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에 대한 패널자료로서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응답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5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경상·조혜영(2004), 이경상 외(200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주요변수

1) 종속변수: 비행

비행은 음주, 흡연, 폭행, 절도 등 14가지 종류의 비행 경험정도를 각 비행의 심각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점수에는 마이너스 점수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비행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0-3점까지로 재척도화(rescaling)를 하여 현실세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4가지 비행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0점이고 14가지 중 최대로 경험한 청소년은 3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3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1이다.

2) 독립변수

(1) 개인요인

① 성별

원자료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자는 0, 남자는 1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② 자이존중감

청소년패널에서는 Rosenberg 자이존중감 척도 중 6개 문항을 추출하여 자이존중감

을 측정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며 뒤의 두 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역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③ 충동성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의 2 문항으로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46으로 나타났다.

④ 공격성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2) 가족요인

① 절대빈곤 여부

절대빈곤 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2003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이하이면 빈곤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즉, 가구원수별로 계산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빈곤가구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비빈곤가구로 정의된다.

② 결손가족 여부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결손가족 여부는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의붓부모가족(친부양모나 양부친

모가족)의 경우에도 양쪽 부모가 모두 존재하면 0으로 처리하였다. 절대빈곤 여부와 결혼가족 여부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③ 부모지도감독

부모지도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개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85이다.

④ 부모자녀애착

부모자녀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6개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⑤ 부모의 학대

학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상적인 의미의 학대라기보다 가혹한 훈육에 가깝지만 학대도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대에 근접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6이다.

⑥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등의 2문항(5점 척도)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5이다.

(3)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① 비행또래집단

이 척도는 근신·정학·퇴학,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갈취, 절도 등의 8가지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주위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매우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가 8개의 비행과 관련되는지를 각 비행별로 ‘매우 친한 친구들의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됨)사이의 점수로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82이다.

② 학교애착

학교애착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는지, 학교 숙제를 잘 하는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등의 5개 항목을 평균하여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61이다.

③ 학교몰입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역문항)”,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상급 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등의 3개 문항으로 학교몰입(school commitment)을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63이다.

④ 학업성취

이 척도는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영역에서의 반 성적

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적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9이다.

(4) 지역사회요인

① 지역사회 지도감독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의 2개 문항으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도감독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84이다.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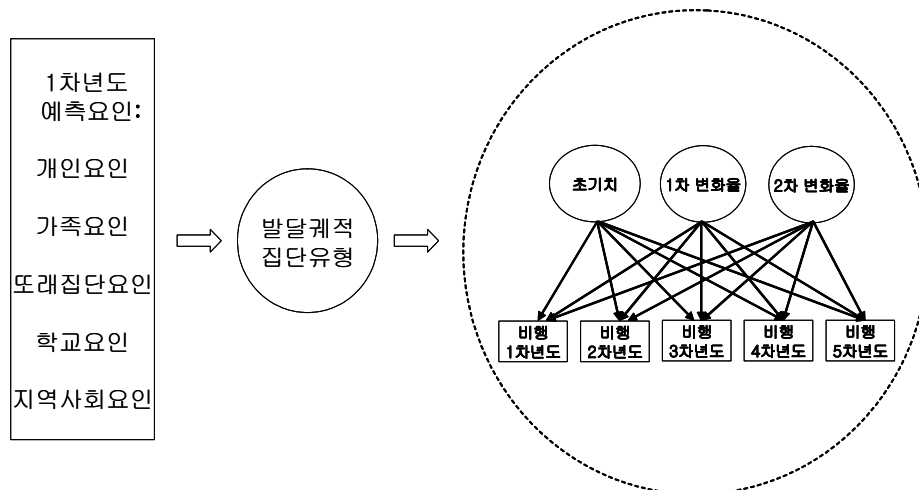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중 하나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여 비행 발달 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려고 한다.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발달 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어내어 상이한 발달 유형을 도출하는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SAS(Version 9) 프로그램의 절차 중 TRAJ를 사용한다. 이 모형에서는 결측치가 포함된 불완전한 사례도 자료분석시 제외되지 않는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 연령과 비행을 연결시키는 다항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it}^{*j} = \beta_0^j + \beta_1^j \text{Age}_{it} + \beta_2^j \text{Age}_{it}^2 + \varepsilon,$$

이 식에서 y_{it}^{*j} 는 잠재적인 변수로서 집단 j에 조건지어진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측정값을 뜻하며, 첨자 i는 개인에 따라 측정횟수와 측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ge_{it} 는 개인 i의 시점 t에서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ε 는 오차를 의미하며 0의 평균과 σ^2 의 변량을 가진 것으로 가정된다. 모형의 계수 β_0^j , β_1^j , β_2^j 는 발달 궤적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첨자 j는 이 계수가 집단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발달 궤적이 집단마다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특징이 첨자 j 없이 모든 개

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계식을 사용하는 잠재성장모형과 가장 상이한 점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집단의 관찰되지 않은 모집단이질성(unobserved population heterogeneity)을 특정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비행 척도는 0-3의 값을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갖지만 그 안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단정규(censored normal)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는 내포되든 내포되지 않든 매우 다양한 상황의 모형비교에 적합하기 때문에(Kass & Raftery, 1995; Raftery, 1995),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은 BIC를 사용하여 최적모형을 결정한다. 이 때 BIC의 절대값이 가장 낮은 모형이 최적모형이 된다(Nagin, 2005).



[그림 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2수준 분석모형

위의 절차를 통해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이 도출되면 다음 단계는 [그림 1]처럼 상이한 발달궤적의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종속 변수가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이므로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 분석은 SAS(Version 9)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비행 발달 궤적의 다양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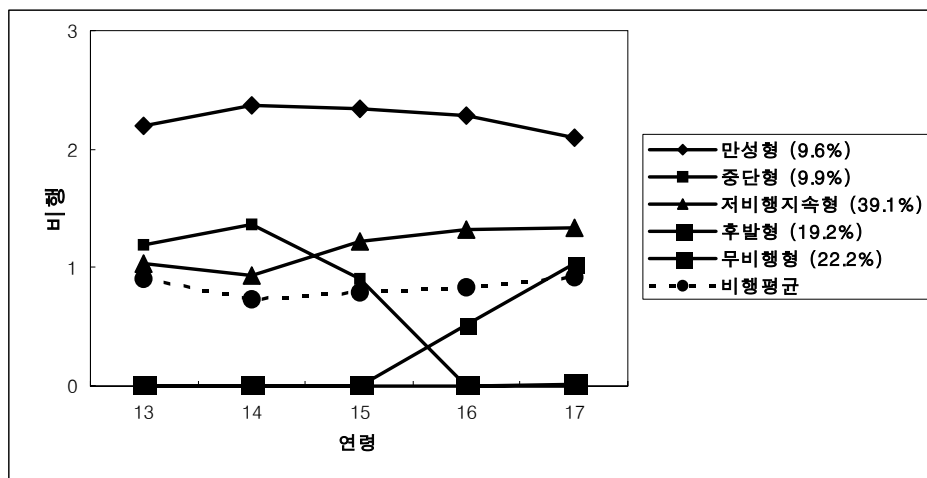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절차에 따라 비행의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각 집단 간의 비교는 BIC를 사용하였고, 이 중 절대값이 가장 낮은 5집단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정익중, 2009). 이러한 모형은 주관적인 분류기준에 의해 진행되는 비행집단의 유형화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예를 들어 5개 년도를 대상으로 각 년도의 비행여부를 가지고 주관적인 분류를 진행하면 32(=2⁵)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비행의 종류나 심각도를 추가하거나 연도가 늘어나면 그 유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선 실제 있지 않은 유형을 중요한 유형인 것처럼 간주하는 과대추정의 위험과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소추정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Chung et al., 2001). 하지만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낮다.

<표 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비행 발달 궤적의 모형적합도와 집단분포

모형	BIC	발달 궤적 집단분포					
		1 st	2 nd	3 rd	4 th	5 th	6 th
1집단	-22094.02	100.0%	-	-	-	-	-
2집단	-20825.57	53.2%	46.7%	-	-	-	-
3집단	-20695.41	51.0%	25.6%	23.4%	-	-	-
4집단	-20587.05	41.7%	24.6%	18.1%	15.6%	-	-
5집단	-20438.56	39.1%	22.2%	19.2%	9.9%	9.6%	-
6집단	-20480.92	36.0%	22.3%	13.6%	11.3%	8.7%	8.1%

주: 진하게 표시된 모형이 최적모형

비행의 5집단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비행 발달궤적에서 무비행형 집단은 전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22.2%가 이에 속했다. 4개년 자료와 주관적인 유형화를 활용한 이경상 외(2007) 연구에서도 무비행 청소년은 24.7%를 차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발형 집단은 15세까지 무비행형처럼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16세부터 늦게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19.2%가 이에 속했다. 셋째, 저비행지속형은 13세부터 17세까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3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비행의 평균발달곡선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중단형 집단은 후발형과 반대로 13-15세에는 비행을 저지르다가 16세부터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9.9%가 이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만성형 집단은 13-17세 관찰기간 내내 높은 수준의 비행을 꾸준히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9.6%가 이 집단에 속했다(정익중, 2009).



[그림 2] 비행 발달궤적의 5집단 모형

이 발달궤적은 14가지 종류의 비행을 모두 사용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각 비행의 심각도를 충분하게 반영했지만 만약 음주, 흡연 등의 경비행을 비행 척도에서 제외했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소년패널자료에서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

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다른 심각한 비행들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경상 외, 2007). 본 연구에서 무비행형 집단이 22.2%에 불과한 것은 음주나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중비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무비행형 집단이나 중단형 집단의 비율은 증가되고 후발형 집단의 비율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행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다음 단계로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얻어진 5개의 비행 발달궤적 집단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였다. 5개의 집단 유형이 종속변수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분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인요인에서 지역사회요인에 이르는 생태체계적 요인이 비행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비행형과 비교하여 후발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성별, 학교애착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일수록, 학교애착이 낮을수록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해서 후발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비행지속형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성별, 충동성, 공격성, 가족갈등, 비행또래집단으로 나타났고,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부모지도감독, 학교애착,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가족갈등이 있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집단에 비교하여 저비행지속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있을수록, 또한 학교애착이 높고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저비행지속형 집단에 비교하여 무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비행집단에 비교하여 비행중단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비행또래집단으로 나타났고, 비행중단형 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는 학교애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비행 집단에 비교하여 만성형 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충동성, 공격성, 결손가족여부, 가족갈등, 비행또래집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형 비행 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들은 부모지도감독, 학교애착,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결손가족이면서 가족갈등도 높고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하고 학교애착이 높으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교하여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 충동성, 비행또래집단, 학교애착의 경우, 무비행형과 후발형의 비교 이외의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학교애착이 낮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전체 집단)

	무비행형 대 후발형		무비행형 대 저비행 지속형		무비행형 대 중단형		무비행형 대 만성형	
중2(2003)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528	.564	.473	.476	-1.087	.650	-1.376	.762
개인요인								
성별(남자=1)	.483***	.119	.431***	.101	-.088	.138	.756***	.167
자아존중감	.093	.113	.126	.095	.249+	.127	.039	.147
충동성	.008	.076	.310***	.064	.251**	.087	.428***	.104
공격성	.146	.099	.213*	.084	.283*	.114	.676***	.136
가족요인								
절대빈곤(빈곤=1)	-.025	.237	-.060	.200	-.177	.286	.021	.301
결손가족(결손=1)	.295	.332	.087	.298	-.270	.450	.843*	.380
부모지도감독	-.075	.082	-.182**	.069	-.076	.093	-.426***	.107
부모자녀애착	.018	.095	.004	.080	.014	.108	.077	.124
부모의 학대	-.038	.197	-.014	.070	-.082	.097	.037	.102
가족갈등	.063	.631	.110+	.065	.057	.089	.212*	.095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1.847	1.223	2.543***	.779	2.957***	.913	5.521***	.859
학교애착	-.189+	.105	-.442***	.089	-.512***	.119	-.597***	.142
학교몰입	.002	.001	-.058	.061	-.099	.082	-.053	.093
학업성취	-.054	.331	-.156*	.079	.015	.107	-.506***	.127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지도감독	.007	.015	.045	.047	-.005	.065	.098	.078

+p <.10, *p <.05, **p <.01, ***p <.001

다음으로 13세(중2 시기)때 이미 비행을 경험하고 있었던 중단형, 저비행지속형, 만성형의 세 집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3〉). 중단형 집단은 13세때 비행을 경험했지만 점차 비행을 줄여가다 16-17세에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반면 저비행지속형과 만성형 집단은 비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집단이다. 이번 분석은 탈비행(desistance)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비행 유경험자의 탈비행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단형과 비교하여 저비행지속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소수로써 성별, 학업성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중단형 집단에 비해 저비행지속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단형 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로는 성별, 공격성, 결손가족여부, 비행또래집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들은 부모지도감독,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면서 공격성이 높고 결손가족배경을 가지면서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중단형 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하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교하여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 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13세 비행 유경험집단)

중2(2003) 예측요인	중단형 대 저비행 지속형		중단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1.560	.615	-.289	.843
개인요인				
성별(남자=1)	.519***	.132	.844***	.185
자아존중감	-.123	.119	-.210	.161
충동성	.059	.082	.176	.114
공격성	-.070	.108	.394**	.149
가족요인				
절대빈곤(빈곤=1)	.117	.272	.198	.349
결손가족(결손=1)	.357	.427	1.112*	.480
부모지도감독	-.106	.087	-.350**	.118
부모자녀애착	-.010	.101	.063	.136

중2(2003) 예측요인	중단형 대 저비행 지속형		중단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부모의 학대	.069	.090	.120	.114
가족갈등	.053	.082	.155	.105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415	.693	2.563***	.754
학교애착	.070	.113	-.086	.156
학교몰입	.040	.077	-.045	.102
학업성취	-.171+	.102	-.521***	.140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지도감독	.049	.062	.102	.087

+p < .10, *p < .05, **p < .01,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발달궤적을 도출해내고 발달궤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인기에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기 쉬운 범인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비행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비행을 시작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의 수준을 높여가는 청소년, 이미 높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등을 구분해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비행의 상이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발달궤적 유형에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패널자료(중2 패널)와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 비행에는 무비행형, 후발형, 저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등의 5집단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나타났다. 전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무비행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22.2%가 속했고, 15세까지는 무비행형처럼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16세부터 늦게 비행을 저지르는 후발형 집단은 19.2%가 속하였다. 13세부터 17세까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르는 저비행지속형은 청소년의 3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후발형과 반대로 13-15세에는 비행을 저지르다가 16세부터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중단형 집단은 9.9%가 속했고, 관찰기간 동안 내내 높은 수준의 비행을 꾸준히 저지르는 만성형 집단은 9.6%가 속했다. 본 연구에서 중단형 집단은 Moffitt (1993)의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형 집단은 Moffitt의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저비행지속형의 경우는 미국의 비행 발달궤적 연구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유형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입시로 인해 심각한 비행을 자제하는 동시에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흡연, 음주 등 낮은 수준의 지위비행을 실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대학입학 이후에 어떤 비행양상을 보일 것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학 이후 지연된 청소년기(delayed adolescence)처럼 입시로 인해 욕구충족을 연기했던 것이 폭발적인 비행양상으로 이어지든지 청소년기의 실험적 행동으로 끝날지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정익중, 2009).

비행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인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충동성, 비행또래집단, 학교애착의 경우, 무비행형과 후발형의 비교 이외의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학교애착이 낮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했지만 비행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고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정소희, 2009)에서도 비행또래집단과 학교애착은 비행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방법을 초월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과 충동성은 개인의 기질과 관련하여 비행 발달궤적 연구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았던 변수로서(Nagin & Tremblay, 2005)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영역에서 무비행형에 비해 후발형과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가족 내 유무형 자원이 부족한 위기가족의 특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저비행지속

형이나 만성형과의 비교분석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이 여전히 유효하고 13세 비행 유경험집단에서 탈비행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유의했던 것에 근거한다면 가족기능의 강화는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영역과 교육적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감소하거나 학교애착과 학업성취가 증가하여 학교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면 비행을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을뿐더러 비행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빨리 비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영역에서의 개입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교애착을 높이고 비행또래 집단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는 지역사회 속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사들에게만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으며, 학교 혼자서 교육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인성교육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내 상담전문가(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와 다양한 지역사회전문가 집단의 팀워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비행문제에 대한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의 재범현상이다(이경상 외, 2007). 본 연구에 의하면 관찰기간 내내 지속적인 비행을 보이는 만성형 집단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인력이나 시설로 청소년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위험집단이 누구인지 빨리 선별하고 이들에게 가능한 많은 인력과 시설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만성형 집단을 위험집단으로 미리 선별하고 이들에게 집중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청소년재범현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특별지원이나 회복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내에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 청소년상담지원체계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만성형 집단의 비행에 대해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려움

에 대해 지원하고 악화의 경로를 따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 이외에도 비행의 동태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관련 변수는 본 연구에서 한 개밖에 포함시킬 수 없었고, 포함된 변수도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 인지적인 지표에 가깝다. 차후 범인성 지역사회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의 추가도 중요하지만 생태 체계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요인들이 중복되어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악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연구에 따르면 부모지표 중 어머니관련 지표가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gin & Tremblay, 2005).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낮고, 10대 임신의 경우 만성형 비행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공격적인 어머니가 10대 미혼모가 되며 학교도 일찍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어머니는 또한 무반응적이고 가혹한 훈육을 함으로써 자녀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행이 세대간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모변수의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발달궤적 연구에서 5년간의 변화를 2003년 한 시점의 예측요인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변(time-varying)변수의 도입이나 결합형 모형(joint trajectory analysis)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한 시점에서의 예측도 중요하지만 예측요인도 5년 동안 변화하고 발달궤적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정익중, 2009) 이러한 장기적 변화가 비행을 동태적으로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발달궤적을 도출하는데 14가지 종류의 비행을 모두 사용했지만 음주나 흡연 등 경비행이 포함될 경우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형태의 중비행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경비행과 중비행을 구분해서 비교 분석하거나 중비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각 비행 집단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 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 조사
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2007). 청소년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
소년개발원.
- 이경상 · 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
소년개발원.
- 정소희 (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
20권 2호, pp. 31-64.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35-76.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31호, pp.
133-159.
-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pp.
113-125.
- 허남순 · 오정수 · 홍순혜 · 김혜란 · 박은미 · 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Belknap, J.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3rd ed.).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Chung, I.-J., Hawkins, J. D., Gilchrist, L. D., Hill, K. G., & Nagin, D. S. (2002).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Vol. 76, pp.663-685.
- Chung, I.-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 Nagin, D. (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9, pp.60-90.
- Chung, I.-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 (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cable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17, pp.197-218.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Vol.5, pp.629-648.
- Coie, J. D., & Miller-Johnson,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pp.191-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5-120.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288-31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15, pp.74-101.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Vol.250, pp.1678-1683.
- English, D.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Vol.8, pp.39-53.
- Hagan, J. (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Kass, R. E., & Raftery, A. E. (1995). Bayes facto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90, pp.773-795.
-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0, pp.1-41.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8, pp.351-366.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 American Psychologist*, Vol.53, pp.185-204.
- McLoyd, V. C., Jayaratne, T.,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Vol.65, pp.562-589.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100, pp.674-701.
- Nagin, D. S. & Tremblay, R. E. (2005). What has been learned from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Examples from physical aggression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602, pp.82-117.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cora, P., Whittaker, J., Maluccio, A., Barth, R., & Plotnick, R. (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2nd ed.).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Vol.25, pp.111-164.
- Sampson, R. J. (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disorganization. *Social Forces*, Vol.70, pp.43-64.
- Sampson, R. J., & Wilson, W. J. (1994).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pp. 37-5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 Dulmen, M. H. M., Gonyea, E. A., Vest, A., & Flannery, D. J. (2009).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Exploring discrepancies in the empirical findings. In J. Savage (Ed.), *The development of persistent crimi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ilson, W. J. (1991). Studying inner-city social dislocations: The challenge of public agenda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6, pp.1-14.

ABSTRACT

The Role of Heterogeneity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 Delinquency

Chung, Ick-Joong*

Previous research has shown heterogeneity in delinquency trajectories. Using data from waves 1-5(2003-2007)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different adolescent delinquency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SGM) identified five differ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linquency: non-offender, late on-setter, low-level continuous, desister, and chronic group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s were then employed to examine predictors that distinguish these five groups. Our results indicated that other delinquency groups were distinguished from non-offenders by aggression, impulsivity, antisocial peer group, and low school attachment. Among youths who were already delinquent by age 13, chronics were distinguished from desisters by aggression, poor family management, antisocial peer group,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heterogeneity, delinquency, developmental trajectories,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SGM), prevention

투고일 : 6월 8일, 심사일 : 7월 20일, 심사완료일 : 7월 20일

* Ewha Womans University